



단 결 과 연 대 로 책 임 지 는 경 주 지 부 !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보 23호

발행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 전화 054-748-3223 | 팩스 054-773-9270 | 인터넷 gj.kmwu.kr | 발행일 2026.09.21(월)

일진베어링 · 현대아이에이치엘 의견접근

추석 전 교섭 막바지... 노측 “회사가 평소 직원들의 신뢰 얻어야”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23차 집단교섭이 9월 21일(월) 9시 현대아이에이치엘 강당에서 진행됐다.

현대아이에이치엘 사측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교섭에는 노측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 외 14명, 사측 우영산업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했다. 경주지부 박인룡 총무부장의 사회로 교섭 성원을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대표 모두발언에서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아직 의견접근하지 못한 사업장들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사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조금씩 양보해 추석 전 교섭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남은 사업장 가운데 두 곳이 오늘 의견접근하길 바란다”며 “노·사 간 불신에 노동조합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합원들이 회사를 신뢰하는지는 회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추인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회사가 평소 직원들의 신뢰를 얻고 이번 교섭도 원만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일진베어링과 현대아이에이치엘이 임금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노측은 모두 수용거부했다. 정진홍 지부장은 “교섭 의지가 없다면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사측은 추가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9시 25분 속개된 교섭에서 두 사업장이 추가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노측은 모두 수용거부했다. 사측은 추가 검토를 위해 다시 정회를 요청했다.

9시 55분 속개된 교섭에서 일진베어링과 현대아이에이치엘이 다시 제시안을 제출했다. 노측은 현대아이에이치엘 제시안을 수용거부하고, 일진베어링 제시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10시 10분 속개된 교섭에서 정진홍 지부장은 “일진

베어링 제시안은 의견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아이에이치엘이 추가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노측은 수용 거부했고, 사측은 추가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10시 50분 속개된 교섭에서 현대아이에이치엘이 다시 추가 제시안을 제출했다. 정진홍 지부장은 “사측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들었다”며 “지회 사무직 요구와 관련해 충분히 교섭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사측이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노측은 제시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

○ 일진베어링 제시안(의견접근)

구분	1차 (09.08.)	2차 (09.21.)	3차 (09.21.)	4차 (09.21.)	비고
시급	300원	300원	310원	330원	- 호봉승급 별도
타결일 시급	1100만원 (상품권 30만원)	1150만원 (상품권 30만원)	1170만원 (상품권 30만원)	1170만원 (상품권 30만원)	
유급휴일	4일	5일	5일	5일	- 가결시 당일 휴무

○ 현대아이에이치엘 제시안 (의견접근)

구분	6차 (9.21.)	7차 (9.21.)	8차 (9.21.)	9차 (9.21.)	10차 (9.21.)	비고
시급	290원 (69,600원)	300원 (72,000원)	310원 (74,400원)	320원 (76,800원)	320원 (76,800원)	- 소급분 10월 중
일시금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 9월 23일(수)
미래성장 격려금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상품권 50만원)	- 12월 18일(금) - 상품권 10월 중

△ 경주지부 2026년 제23차 지부집단교섭 현장사진

